



여성 질환-질염 완전 극복하기(1)

저자 **김성철**

영남대학교 임상약학대학 겸임교수

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

모든 여성들은 일생 동안 감기 걸리듯이 몇 번은 냉·대하증으로 고통을 받지만 혼자 고민을 하거나 확실한 치료를 하지 않으므로 각종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대하증을 초래하는 질염을 모두 성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물론 질염 중에서 성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밖에 명확하지 않은 원인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서식하는 균의 균형이 깨져 발생하는 질염도 있고, 폐경 이후 호르몬이 부족해 생기는 질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각종 후유증 없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 원고에서는 각종 질염의 특징과 치료법 및 예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의 위축성 질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질 분비물이란 어떤 것일까요?

정상적인 질의 표면은 피부와 마찬가지로 세포가 4~5층의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 맨 아래에서는 자꾸 세포가 새로 생기고, 맨 윗 표면의 세포는 수명이 다하면, 피부에서 때가 벗겨지는 것과 같은 이치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피부와 달리 질의 경우에는 세포에서 나오는 물기(삼출액)가 가해져 액상 분비물이 생기게 됩니다. 질 분비물은 질에서 떨어져 나오는 세포와 세포 사이의 조직액이 밖으로 스며 나오는 삼출액 때문에 생깁니다.

또한, 자궁의 입구를 자궁 경부라고 하는데, 배란기가 되면 자궁 경부는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맑고 끈적끈적한 점액을 분비하고 이것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 밖에 질 입구의 바톨린선이나 피지선에서도 소량의 분비물이 분비되며, 자궁 내막이나 나팔관에서도 삼출액 등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정상적인 질 분비물은 색이 희고 숨처럼 뭉쳐지는 성향이 있고, 양은 팬티에 약간 묻는 정도지만 배란기 때는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경부의 점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팬티가 다소 젖을 수도 있습니다.

질내의 산도는 강한 산성이며, 정상적으로 수천 종의 각종 균이 존재하여 질내를 정상적인 환경으로 유지

시켜줍니다. 통상 사춘기 이전의 질내는 피부와 유사한 산도(pH 6~8)의 중성에 가까운 산성을 유지하지만, 가임기가 되면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매우 강한 산도(pH 4.5 이하)를 유지하게 됩니다. 질내에서 가장 중요한 세균은 락토바실리우스란 것으로서, 이것이 글리코젠을 젖산으로 분해해 젖산이 질내 산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질염의 대표적 증상은 병적인 냉·대하증입니다.

질염에 걸린 경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냉·대하증입니다. 팬티가 젖을 정도로 질 분비물이 많은 경우, 색깔이 진하거나 고름처럼 흐를 경우, 생선 비린내 같은 악취가 나는 경우는 병적인 냉·대하증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냉·대하증이 있다고 반드시 질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질염 외에도 자궁경부염이나 자궁경부에 폴립(혹)이 있는 경우에도 대하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질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합병증이 무서운 세균성 질염

어떤 원인으로 인해 질내의 정상 세균보다 병원성 혐기성 세균이 100배, 1000배로 증식하여 생기는 질염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상 세균의 수가 감소하거나 질내 산도가 약해지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질내 산도가 약해지는 요인으로는 자궁 경부에 질환이 생겨서 초래되는 과다한 점액 분비, 혹은 월경 전후에 갖는 잦은 성관계나 질 깊숙이까지 심하게 하는 뒷물 등이 정상 세균총인 락토바실리우스의 서식 환경을 바꿔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균성 질염이 있는 경우에는 골반염으로 이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급성 골반염인 경우에는 체온이 상승하고, 아랫배에 심한 복통이 오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후유증으로 나팔관이 막혀 불임이 되거나, 조산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세균성 질염의 증상으로는 냉·대하증과 함께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악취는 성관계 후 더욱 두드러지는데 그것은 혐기성 세균의 대사물인 '아민'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2) 부부가 함께 치료받아야 하는 트리코모나스 질염

기생충의 일종인 트리코모나스에 의한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는 성병으로 전파력이 매우 강력해 감염된 파트너와 한 번만 성관계를 해도 70% 이상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증상의 특징은 남성에겐 거의 나타나지 않고 주로 여성에게만 나타나는데, 치료는 양쪽 다 받아야 합니다. 트리코모나스 질염 증세를 보이는 환자 가운데 60% 정도에서는 세균성 질증이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유증으로는 골반염, 불임, 임신 중 조기 파막 및 조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여성의 신체 방어력에 따라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물처럼 흐르는 다량의 냉으로 팬티가 젖거나 악취가 나며, 질 입구가 따끔거리고 가렵기도 합니다. 트리코모나스는 자체 운동성이 좋기 때문에 요도를 타고 방광까지 침입하여 트리코모나스는 방광염을 일으켜 오줌소태를 일으키기도 하고, 자궁 내막을 타고 올라가 골반염을 일으켜 아랫배에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3) 심하게 가려운 칸디다성 질염

가장 흔한 형태의 질염으로 약 75%의 여성이 살아가는 동안 한 번 이상 질과 외음부의 칸디다증을 겪으며 45%의 여성이 1년에 2회 이상의 재발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당뇨병을 가진 여성에게는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질염입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흰색의 걸쭉한 냉과 심한 가려움증입니다. 환자들은 흰색의 걸쭉한 냉을 설명할 때 비지 같거나 두부 으깬 것 같거나 혹은 치즈 같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가려움증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아래쪽으로 손이 간다고도 합니다.

곰팡이의 일종인 칸디다는 장기간 항생제를 사용할 때 잘 생기며 임신부나 당뇨병 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병입니다. 최근 개발된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는 여성에서도 칸디다 질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고름 같은 냉이 많이 생기는 염증성 질염

질내의 염증성 반응에 의하여 질 상피 세포가 심하게 떨어져 나오면서 고름 같은 냉이 많이 생기는 경우를 염증성 질염이라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질과 외음부의 화끈거림, 성관계 시 느끼게 되는 통증, 냉의 양이 많아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염증성 질염의 원인을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냉 검사를 해보면 락토바실리우스보다 스트렙토кок사이란 균이 발견됩니다.

5)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한 위축성 질염

정상 세균을 유지시키는 역할은 담당합니다. 그러나 폐경이 되거나 난소를 양쪽 다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게 되어 에스트로겐의 결핍으로 인하여 질벽이 얇아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축성 질염입니다.

위축성 질염은 다량의 냉과 성교통을 유발하며, 질 상피 세포의 위축으로 인해 건조감이 생기고, 성관계 후에는 소량의 출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각종 질염의 비교 및 특징

원인 증상	주 발병연령	소양감	분비물	비고	치료법
칸디다성질염	가임기	아주 심함	백색, 끈끈함 거의 무취	- 임신, 당뇨, 항생제, 경구피임제 등으로 악화	항진균 질정 사용 또는, 경구용약물을 복용하기도 있음
트 리 코 모 나 스 질염	가임기	심함	색은 다양함 악취가 심함	- 가장 흔함 - 딸기모양의 반점이 나타남 - 성교로 쉽게 전염	항원충제를 7일간 복용, 배우자도 동시 치료해야 함
세균성질염	가임기	경미함	약간 끈끈함 약간의 악취	- 헤모필루스 질염이라고도 불림	항생제 질정 또는 7일간 복용, 7일간 항원충제 복용
헤르페스성질염	가임기	거의 없음	질상피 궤양	- 특이한 증상이 없음 - 두통, 발열 등 전신증상 동반 - 자궁경부암의 유발 인자	항바이러스외용제 도포
임균성질염	전 연령기	경미	황색 냄새는 경미	- 국소자극감도 있음	항생제 복용
노 인 성 위 축 성 질염	폐경기 이후	심함	황색 혈액이 섞임	- 폐경기후 관리가 중요	에스트로겐 크림 도포 또는 경구호르몬제 복용

질염의 예방

- 외음부를 청결하고 건조하게 합니다.
- 자극성이 있는 비누나, 세척제 사용 금합니다.
- 피임기구를 깨끗하게 사용합니다.
- 꽉 조이는 바지나 팬티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 습기를 방출하지 못하는 의복 착용하지 않습니다.
- 피곤한 건강상태를 피합니다.

질염의 첫 증상은 보통 때와는 다른 분비물 혹은 여러 증상들입니다. 먼저 질염이 의심이 되면 산부인과
에 방문하시어 진찰 후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질염은 치료가 잘 되지만 자주 재발을 할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